

“이번 주말 우리 가족은 과학체험 예약”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GIST 부스에서 자율주행 해저탐험과 실시간 AI 음성더빙을!

- GIST,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행사인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참가... 과기정통부와 대전시 공동 주최로 25일(목)부터 4일간 열려
- 첨단 모빌리티(김승준 교수)와 오디오 AI(김홍국 교수) 분야 우수 연구성과 전시 부스 운영해 관람객과 소통



▲ GIST가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과학뮤지엄'파트에 부스를 마련하고, '인간중심 지능형 시스템 연구실(김승준 교수)'에서 만든 ▲'자율주행 차량 다감각 몰입형 콘텐츠'와 '오디오 지능 연구실(김홍국 교수)'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음성변조/자동더빙 기술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이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가해 첨단 모빌리티와 오디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보인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과학행사로, 과학기술문화 체험 중심의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국가전략 기술 연구성과 전시 중심의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을 통합 개최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나 볼 수 있다.

GIST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최신 R&D 연구성과 전시 공간인 '과학뮤지엄'파트에 부스를 마련하고 '인간중심 지능형 시스템 연구실'(지도교수 융합기술학제학부 김승준 교수)에서 만든 ▲'자율주행 차량 다감각 몰입형 콘텐츠'와 '오디오 지능 연구실'(지도교수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교수)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음성변조/자동더빙 기술 콘텐츠'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 '자율주행 차량 다감각 몰입형 콘텐츠'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을 통한 시각과 청각, 전기 자극을 통한 햅틱 감각까지 다감각 시스템을 제공해 **해저(海底) 가상환경**에서 보다 생생하고 실감 나는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 '인간중심 지능형 시스템 연구실(김승준 교수)'에서 만든 '자율주행 차량 다감각 몰입형 콘텐츠' 전시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체험하고 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음성변조/자동더빙 기술 콘텐츠' 부스에서는 친숙한 드라마나 유튜브 콘텐츠가 관람객 자신의 목소리로 재생되고, **한국어로 말하면 영문으로 자동 번역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 '오디오 지능 연구실(김홍국 교수)'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및 자동번역/음성변조/자동더빙 기술 콘텐츠' 전시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체험을 하고 있다.

특히 25일(목) 개막식에서는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임랩(Fame-Rap) 시즌1'의 우승자이자,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래퍼 '광어(본명 김동우)'가 축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기철 총장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GIST의 첨단 모빌리티와 AI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GIST는 더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과학을 가깝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와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전 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4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두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며 **우리 일상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